백두산

33호 - 주체91(2002)년 5월 17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미국 강경보수세력의 ≪북조선위협≫소동은 모략책동

미국이 겉으로는 우리와의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다.

요즘 미군부호전계층은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들을 개발≫하며 ≪미싸일기술을 수출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미싸일개발과 미싸일기술수출≫이 태평양지역뿐아니라 세계각지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 지어 그들은 ≪북조선이 우려대상국≫이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이 우리의 ≪위협≫에 대하여 아무리 허튼 나발을 불어대도 그것을 곧이 들을 사람은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의 반공화국선전나발은 사실을 뒤집어 엎은 어리석고 위선에 찬 궤변이기때문이다.

우리의 미싸일기술이 미국에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는것은 미국의 정보전문가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미국호전계층이 우리의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떠들어 대는것은 도적이 도적이야 하고 소리치는것과 같은것이다.

핵, 미싸일위협에 대하여 말한다면 미국이 전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핵공포와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해야 할것이다. 지구상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각종 미싸일들을 끊임없이 개발생산하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의 호전집단은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나깨나 대량살상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생각만을 하고 있으며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미국방성이 국회에 제출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핵공격계획이다. 여기에서 미국호전집단은 7개의 핵공격대상국들을 지정하고 이 나라들에 핵선제타격을 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 놓았다.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군이 벌려 놓았던 사상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핵선제타격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무모한 시험전쟁이였다.

미국의 호전집단이 적극 추진시키고 있는 미싸일방위계획은 우주를 군사화하고 세계를 핵참화속에 몰아 넣는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극히 위험한 핵전쟁계획이다.

미국은 미싸일기술을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데서도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고성능미싸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일본에 제공한 미국은 지난 4월 30일 고도의 반항공능력을 가진 최신예 ≪이지스≫무기체계를 일본에 팔아 주기로 결정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미싸일요격기술을 다른 나라들에 이전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의 해상과 지상, 공중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기 위한 계획의 한 고리이다.

모든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핵위협과 대량살상무기전파의 장본인이며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류멸살도 마다하지 않는 가장 위험한 핵불량배국가라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를 주공전선으로 삼고 있다. 전조선을 틀어 쥐고 이곳을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지배권을 확대하며 세계에 대한 패권적지배를 실현하자는것이 미국의 전략목표이다. 이로부터 미국호전세력은 우리 공화국을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의 ≪북조선위협≫소동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 가는 미군철수요구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처지를 모면하고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장기화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략책동이다.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방중상과 압살정책에 계속 매여 달린다면 그것은 저들의 침략성, 호전성만 더욱 드러내고 고립과 파멸을 다그치는 것으로 될것이다.

2002/05/15
노동신문 논평

선군정치의 위력

≪로동신문≫ 15일부는 강력한 군력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있는 한 그 어떤 침략세력도 조선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해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는 선군정치의 위력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과 의지의 응결물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대한 선군정치는 적들의 도전으로부터 혁명과 민족을 지키는 애국의 정치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려는 온 나라 인민의 정치사상적각오와 백절불굴의 기상을 백배해 주는 위대한 기치로 되고 있다. 총대우에 나라와 민족도 평화도 통일도 있다는것이 선군정치에 맥박치는 기본정신이다.

오늘 우리의 인민군대는 민족의 안녕을 목숨 바쳐 지키려는 사상정신적풍모에 있어서나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해치려 드는 자들을 단매에 요정낼수 있는 전투력과 위력에 있어서 그 어느 나라 군대에도 대비할수 없는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

론설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선군정치의 위력은 죽음을 각오한 혁명적립장과 견결한 반제투쟁정신의 산물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의 선군사상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켜 완강히 맞받아 나아가는 견결한 공격정신이며 그 근저에는 죽음을 각오한 혁명적립장이 놓여 있다고 론설은 강조하였다.

론설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선군정치의 위력은 우리의 강철 같은 일심단결의 위력이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힘은 온 사회의 강력한 일심단결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2/05/15 조선중앙통신

예술의 천재 김정일장군님을 경모

평론가 원일배씨가 지난 5월초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을 경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전에 이북의 극영화들을 보는 기회를 가졌다. 극영화들은 모두가 인간의 참된 삶이란 무엇이며 값지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방향각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이남의 극영화들은 거의가 황금만능의 세상이 빚어낸 패륜패덕과 말세, 애정윤리로 일관되고 있지만 이북의 극영화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서 개인의 행복도 빛난다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정화시켜주고 있다. 정말 이북의 극영화들은 이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고 있어 보면볼수록 감동적이다.≫

원씨는 계속해 ≪이북의 극영화들이 이렇듯 높은 경지에 올라 관객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은 다 예술의 천재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화예술창작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기 때문이다≫라며 그분께서 집필하신 불후의 명저 ≪영화예술론≫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분을 예술의 천재라고 극찬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15일

2 종합
- ≪주적≫론은 철회되여야 한다
- 이회창에 등돌리는 여론
- 한나라당의 윤민석씨 고발을 규탄
- 제주도민 방문단 평양 등 참관
- ≪야스쿠니진쟈≫참배 범죄적 성격 불변
- 박근혜씨 평양방문 결과에 대하여
- 우려되는 미국의 정치공작
- 금강산연대, 보수단체에 토론회 제안

4 노작
-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3)

6 세기와 더불어
- 8장 4절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논함(2)

8 칭송
- 경하축시
- 만민의 지성

9 노동신문 정론
- 영원한 심장의 노래(2)

10 김일성대학방송강좌
-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광주의 피값을 받아내자
- 5.18광주민중봉기의 교훈과 현실
- 미국의 삽살개

13 투쟁보도
- 국민연대, 박정희기념관 건립 규탄집회
-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기념관 공사현장서 농성
- 5.18시민법정 열린다
- 통일연대, ≪통일염원 스승의 날≫ 행사

15 운동강좌
-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11)

≪주적≫론은 철회되여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국방부≫가 ≪2002년도 국방백서≫에서 우리에 대한 ≪주적≫표현을 그대로 유지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주적개념을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사활적인 안보의 중요성이 정치론리에 눌려 해석되여서는 안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 군사당국이 ≪주적≫론의 철회를 요구하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 의연히 낡은 대결관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것으로서 겨레의 비난을 자아내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 군사당국의 ≪주적≫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6. 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더우기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4.5공동보도문이 발표되여 일시 동결되였던 북남관계가 좋게 발전할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있는 때에 남조선군사당국이 동족을 여전히 ≪주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상대방인 우리를 동포애적심정으로 뜨겁게 대하지 않고 민족을 심히 자극하는 적대시적인 ≪주적≫으로 몰아대면서 우리와 마주 앉아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에 대하여 론의하겠다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군사당국의 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모처럼 마련된 4.5공동보도문의 생활력을 무마시키려는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술책으로밖에 달리는 평할수 없다.

≪주적≫론은 결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평화론이 될수 없으며 우리를 해치기 위한 전쟁론, 대결론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 ≪외교통상부≫ 장관이라는 자가 미국에 가서 ≪큰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고 떠든것이라든가, 차세대 전투기기종으로 미국보잉회사의 ≪F－15K≫기를 끌어 들이기로 한 사실, 지난 3월 말에 진행된 미군과의 통합전쟁연습, 지금 벌리고 있는 ≪화랑≫전쟁연습소동 등은 모두 ≪주적≫론과 무관계하다고 볼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한 ≪주적≫론은 허용될수 없다.

동족을 ≪주적≫으로 몰아대는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또다시 긴장격화의 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극히 위험한 반민족행위이다.

동족과의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는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고서는 6. 15북남공동선언의 성과적리행을 기대할수 없다.

2002/05/15
조선중앙통신 논평

이회창에 등돌리는 여론

이회창이 한나라당대통령후보로 확정되자 TK세력은 물론 영남지방유권자들이 이회창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여론조사단체인 ≪바른소리센터≫가 10일 대구와 부산, 경상남북도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이번 대선에서 이회창을 지지하겠는가≫라는 물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5%가 반대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그 첫째이유로 이회창이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을 부추기는 악의 뿌리이고 친일분자의 후손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이회창이 집권하면 6.15공동선언이 파괴되고 남북대결이 악화되어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대한 악랄한 탄압과 정치보복 등 무서운 법관독재가 실시되리라는 것, 부정부패가 더욱 심해지리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5%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좀더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15일

한나라당의 윤민석씨 고발을 규탄

반이회창 대학생투쟁본부

한총련의 ≪보수정치 6.15방해 이회창반대 대학생투쟁본부≫는 한나라당이 반미가요 ≪기특한 과자≫ 등을 창작해 널리 알려진 작곡가 윤민석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규탄해 10일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윤민석씨가 4월 8일에 발표한 노래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는 특히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애비의 친일행적, 아들의 병역기피 등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대표적 사건들을 그대로 노래로 옮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4월 28일 한나라당이 윤씨를 서울지법에 고발했고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이 그를 호출한 사실을 밝히고 성명은 이 사건을 두고 항간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격으로 고발장을 작성한 한나라당에 조소와 야유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한나라당이 윤민석씨를 고발함으로써 이회창에 대한 악화된 민심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환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한나라당이 길을 잘못 들었다면서 이회창이 애비의 친일행위를 사죄하지 않으면 과거일제에게 희생당한 민족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 것이며 귀족정치, 부패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일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국민은 영영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윤민석씨에 대한 고발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지역 대학생들의 단일한 의지를 모아 거리음악회, 탄원서작성 등 탄핵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이회창은 대통령은커녕 후모출마도 하기전에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을 다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5월 15일

남조선 제주도민방문단 평양과 지방 여러곳 참관

남조선 제주도민방문단은 평양과 지방의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

만경대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은 방문단성원들은 만경대고향집과 백두산밀영고향집에 소중히 보존되여 있는 사적물들을 돌아 보았으며 삼지연대기념비도 참관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묘향산지구를 돌아 보았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세계 많은 나라의 진보적인사들과 남조선, 해외동포들이 드린 선물들을 돌아 보았으며 묘향산의 력사유적유물들을 참관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단군릉과 동명왕릉을 참관하고 모란봉일대를 유람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수대창작사, 평양지하철도를 참관하였으며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2002/05/15 조선중앙통신

≪야스구니진쟈≫참배의 범죄적 성격은 절대로 달라 질수 없다

일본당국자들은 지난 4월 21일에 있은 고이즈미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속에 진행되였다≫느니 뭐니 하는 파렴치한 소리들을 내돌리며 부산을 피우고 있다.

≪민주조선≫ 15일부는 이것은 일본정치인들의 ≪야스구니진쟈≫참배와 관련한 반동적성격을 미화분식하여 세계여론의 경계심과 우려, 비난을 눅잦혀 보려는데 있다고 까밝혔다.

론평의 필자는 일본총리의 ≪야스구니진쟈≫참배가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이루어 졌던지간에 그 범죄적성격은 절대로 달라 질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총리가 ≪야스구니진쟈≫를 참배한 것은 세계평화를 념원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또다시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는 범죄적목적을 추구하기 위한것이다.

군국주의해외팽창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계평화를 운운하는것은 아시아인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침략목적을 추구하는 군국주의적≪야스구니진쟈≫참배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세계가 일본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

해외침략의 길에 나섰다가 패망한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침략의 길에 나선다면 그것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짓으로 된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해두는바이다.

2002/05/15 조선중앙통신

박근혜씨 평양방문 결과에 대한 통일연대 논평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 14일 3박 4일 동안 평양방문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방북성과를 발표하였다.

박근혜 위원장은 방북성과에 대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금강산댐 남북공동조사≫, ≪6.25전쟁당시 행방불명자 생사확인≫, ≪월드컵 개최 이후 9월초 북측 축구대표팀 초청≫, ≪북측 가요 ≪휘파람≫의 인기가수 등 보천보 전자악단 11월말 남한 공연≫ 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위원장은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간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정부에 달려있다≫고 언급하였음을 밝혔다.

통일연대는 박근혜 위원장의 방북을 통해 이루어진 제반합의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평가한다.

첫째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밝혀진 조국통일 3대원칙을 다시금 재확인하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기 위해서는 정치 사상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누구와도 함께 할수 있는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적 힘이 다시금 재확인되었다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한다.

박근혜 위원장은 북측의 환영만찬에서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조국통일 원칙이 세워졌다≫,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이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평양을 방문하게되었다≫고 연설하였으며, 북측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민족자주정신을 확고히 지키고 민족앞에 확약한 7.4공동성명과 6.15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정치 사상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민족화해와 단합을 중요한 기초가 되는 역사적 합의라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7.4남북공동성명과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공동발전을 위한 절대적 기준임을 확인한 점은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방북성과에 대해 박근혜 위원장이 전담해서 발표케 한것은 정치 사상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7.4 남북공동성명과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다면 그 실천과 이행의 기본전제는 서로간의 신뢰임을 확인시켜준것이라 하겠다.

둘째 4.5 남북공동보문과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 있어 민족화해와 단합의 정신에 기초한 정부의 적극적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민족단합을 저해할 수 있는 금강상댐 붕괴위험론과 같은 인위적 문제를 발생시킨 정부당국의 자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강산댐남북공동조사에 대해 북측이 적극적 자세를 취하였다고 박근혜 위원장은 밝혔다. 지난 6일 북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이 담화문을 통해 ≪금강산대 붕괴 위험론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한 날조극≫이라며 ≪6.15 공동선언과 4.5 공동보도문 이행에 새로운 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혀 남북간 경생국면이 조성되면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가 무산된 바 있었다.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박근혜 위원장과의 만남속에서 금강산댐남북공동조사에 적극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한 것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 2차 회의가 확실치도 않은 사실, 오로지 미국위성 통신사의 위성사진이라는 대단히 애매한 근거에 입각하여 애초 경협 의제와 무관하게 민족간 대립구도로 몰고 가려고 했던 정부당국에 대한 항의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즉 정부당국의 4.5 남북공동보도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적극적 입장이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적 문제임이 확인된 것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번 박근혜씨의 방북 성과를 보면서 지금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북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남쪽 정부도 보다 전향적으로 기왕에 합의된 제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02/05/16
통일연대

우려되는 미국의 정치공작

4.5 임동원 특사 방문 이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었던 남북관계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최근 조성되고 있는 일련의 심상지 않은 조짐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4.5 남북당국자간 합의에서 남북은 근본적인 정치 쟁점에 대한 시각 차이를 인정하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4.5 공동보도문에는 6.15 정신에 맞게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 민족공조이냐 외세의존이냐하는 문제가 근본적인 쟁점이 되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보도문의 내용과 실제 합의간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4.5 합의에 의하면 일정한 갈등과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도 남북관계는 대체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 발언에 따른 경협 추진위 무산은 대체로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 속도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격적인 고위급 정치대화 또는 경의선 연결 등 교류협력의 본격화 등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조성되고 있는 일련의 정세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 개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했던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배경은 알려져 있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보도가 LA 타임즈를 통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에 연이어 탈북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 서방의 일부 인사, 단체들은 89년 동독의 붕괴 과정을 상기하며 이북 붕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된 노력의 일환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했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한편 동중국해에서 일본 순시선에 의해 침몰된 ≪괴선박≫ 인양을 둘러싸고 최근 중일간의 외교적 각축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일본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침몰해 있는 ≪괴선박≫의 인양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통일정세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사건은 이북의 금강산댐 붕괴 가능성을 둘러 싼 각축이다. 남측 정부는 미국의 인공위성 자료를 근거로 이북의 금강산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하고 있다. 남측 언론 또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고 이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금강산댐 붕괴 위협의 진위는 차후 알려지겠지만 이 사건이 미국의 인공위성 자료를 토대로 한 고도의 정치 공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한다면 다양한 지점에서 남북대결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일련의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 사건의 배후에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치공작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정세는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격동하고 있다.

첫째는 남측에서 대선을 둘러 싼 정치적 격돌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약한다. 단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문제가 쟁점이 되고 통일정세의 강력한 영향하에 치러지게 된다는 점만을 상기하고자 한다.

두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이다.

필자는 현재 4.5 합의 이후 남북관계 개선 흐름과 미국의 정치 개입이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 행정부 관리들의 계속되는 강경 발언,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의 미국 방문과 관련한 LA 타임즈의 보도, ≪괴선박≫ 인양, 탈북자 문제, 금강산댐 붕괴설 등이 남북관계 개선을 막아 보고자 하는 일련의 정치 공작의 비교적 뚜렷한 실례들이다.

반면 남북관계를 4.5 합의 이상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 또한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암시, 철도 및 도로 연결 구상의 구체화, 제주도민과 박근혜의원의 방북 등이 그것이다.

정세는 엄청난 폭발성을 가지고 내연하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운동진영의 과제는 외세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활로를 열어 내는 것이다.

민경우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2002/05/16
통일연대 홈페이지 통일칼럼

금강산연대, 보수단체에 토론회 제안

≪성우회≫, ≪친북세력 명단공개 추진본부≫등 보수단체들의 잇단 금강산 관광 중단을 촉구하는 광고가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통해 게재되는 가운데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금강산연대)≫는 ≪색깔론으로 포장한 금강산관광 매도 광고≫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성우회는 지난 3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국가안보 위협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4월 11자 조선일보에는 친북좌익세력 명단공개 추진본부(추진본부)가 ≪금강산 관광은 매국행위다. 국민혈세를 국군의 주적에게 퍼주는 이적 행위는 대역죄로 단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또 추진본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27일자 동아일보에 ≪금강산 관광에 퍼주는 국민혈세 총알되어 돌아온다≫, 같은날 조선일보에는 ≪금강산 관광 대금을 통해 **김정일**에 군자금을 대주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이러한 선정적 광고문안과 내용에 대해 금강산연대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시대착오적 광고문안이다≫며 ≪결국 수구세력의 위기의식의 발로와 두차례 선거에서 나타난 색깔 싸움의 전초전을 예고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금강산 연대는 ≪금강산 관광을 퍼주기라고 외친 용맹이 있다면 진짜 퍼주기인 ≪외국 무기 마구잡이 도입≫을 먼저 성토하라≫며 ≪금강산 관광대금은 F-15K 구입 비용 5조 8천억 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고 공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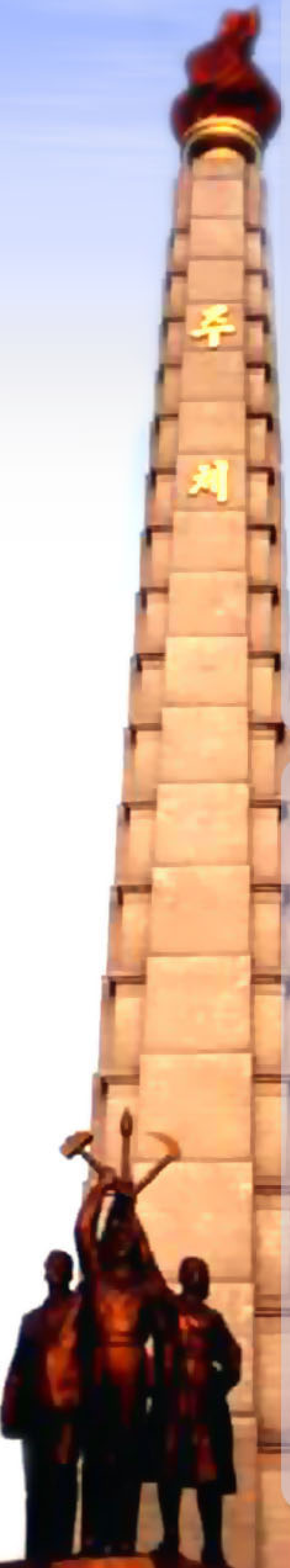
또 ≪금강산 사업은 계약과 합의이행의 문제가 있었지만 남북간 경협의 대표적 사업이다≫며 ≪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서비스나 논의 쓰임새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모든 ≪냉전 수구 세력≫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TV토론이나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애국행위인지 매국행위인지를 가리는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제3의 대안으로 실내토론회등 준비를 위한 예비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정미 기자
2002/05/16 유뉴스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3)

당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 주체69(1980)년 10월



3)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

동지들!

총결기간 3대혁명 수행에서 이룩된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였습니다.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국가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야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로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고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사회주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발전됨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더욱 공고한 정치적 지반과 튼튼한 경제적 기초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되고 그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법과 규정들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는 법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였습니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들이 법적으로 고착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사업을 법 규범과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 규범과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필수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분야의 법 규범과 규정들을 새로 만들고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과 근로자들이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준법 사상교양이 강화되고 법 집행에 대한 인민정권 기관들의 감독 통제 기능이 높아짐으로써 모든 국가 사업과 근로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법 규범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 계도와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혁명과 건설의 무기이며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자입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있으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 주권기관과 행정 기관들의 기구 체계를 개변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민위원회들의 주권적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 기관들의 역할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행정 기관 일군들이 늘 주권기관의 감독 밑에서 사업하게 됨으로써 언제나 인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모든 일을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데서 인민정권 기관 일군들의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민정권 기관 일군들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업하기 때문에 혁명적 세계관이 서지 못한 일군들 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의 리익을 침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민정권 기관 일군들이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인민정권과 인민대중을 리탈시키며 근로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정권기관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요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인민정권 기관 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것을 깊이 자자하고 언제나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고 있으며 국가의 법질서를 모범적으로 지키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민정권 기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개선됨으로써 인민정권 기관들이 인민들 속에 깊이 침투하게 되고 광범한 대중이 인민정권 기관 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위력은 비할 바 없이 강화되였습니다.

국가 활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을 지키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 결정직 담보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모든 노선과 정책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우리 인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관철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이 우여곡절을 모르고 오직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며 우리 인민이 세계 무대에서 민족적 존엄을 떳떳이 지켜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사회제도의 공고성은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담보되여야 합니다.

경제적 기초가 약한 국가사회제도는 결코 공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민족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경제는 사회주의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자주 독립 국가는 반드시 자위적인 국방력을 가져야 합니다.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여야 민족적 독립을 고수할 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위의 군사 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도 물리치고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적원칙이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 나라는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되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나라의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재부가 근로인민대중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회 정치 활동의 온갖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물질적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모두다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안전한 로동조건과 충분한 휴식 조건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던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인민들이 조세 부담에서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사회의 재부가 늘어나는 데 따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계통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 치료제와 무료교육제의 혜택에 의하여 누구나 다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병을 치료받고 있으며 마음껏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며 아무런 근심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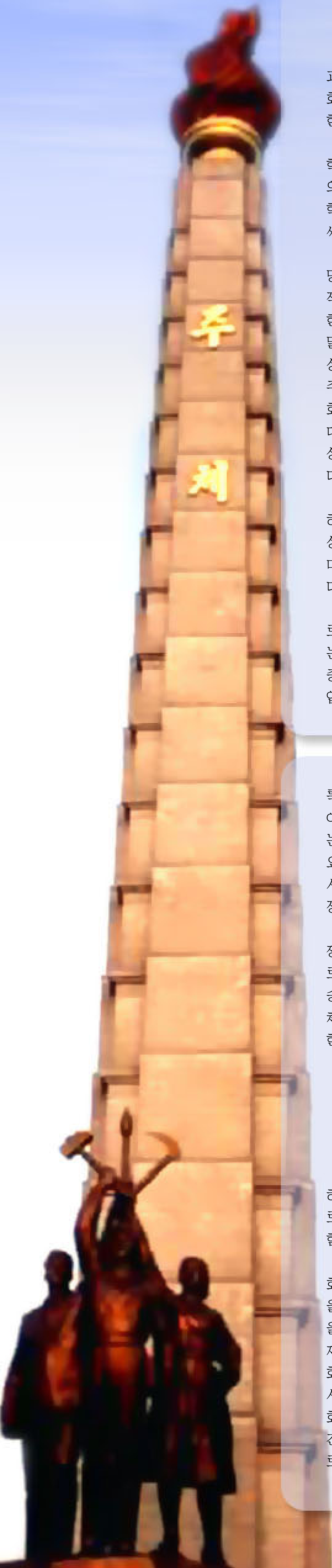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야말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 주는 가장 우월한 제도라는 것을 깊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의 강화발전에서 보다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이 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

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것은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함으로써만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반드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 충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 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인간 개조와 사회 개조, 경제건설과 문화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 수 있으며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이며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입니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지향에 맞게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혁명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며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또한 이 투쟁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며 아직 누구도 실천해보지 못한 생소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에서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조선혁명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도 우리 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 석대로 하여 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킬 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념원에 맞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잘 건설할 수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로선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방도입니다.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으며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되고 발전하여 온 우리 혁명을 계속해나가는 과정이며 혁명과 건설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높은 단계의 혁명투쟁입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는 당면한 투쟁 과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는 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고지이며 이 고지를 점령하여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가까운 앞날에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동지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만드는 인간 개조 사업이며 모든 사회관계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는 사회 개조 사업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모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실현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부터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을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을 강화하며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일관한 방침입니다. 로동계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 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그들의 령도적 역할과 혁명적 작용을 강화하여야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로동계급 대렬에서는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해방 후 새로 자라난 세대들이 로동계급 대렬의 골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로동계급을 혁명화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새 세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혁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동계급 속에서 사상교양과 조직적 단련을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성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그들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와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것입니다.

농민은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이며 농업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입니다.

농민은 계급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로동계급이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할 마지막 계급이며 오늘 우리 시대에 남아 있는 계급적 차이는 다름 아닌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입니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일 계속)

3권 제8장

반일의 기치높이

1. 이광
2. 오의성과의 담판
3. 동녕현성 전투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
5. 마촌작전
6. 밀림속의 병기창
7. 영생의 꽃

4.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논함(2)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는 군인집단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지휘관들이 그 복무조례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런데 좌경기회주의자들은 항일유격대의 복무조례에 규제되어 있는 상하관계를 무시하는 데로 나아갔다. 이것은 규율과 질서, 관병일치를 생명으로 하는 항일유격대의 생리를 파괴하고 그 도덕적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결과를 빚어냈다.

극단적 평등주의는 군대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 나타나 평등의 구호밑에 하급이 자기가 추대한 상급을 존경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준 명령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는 불미스러운 작태까지 벌어놓았다.

하급이 상급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반말질을 하거나 상급이 내린 명령지시를 놓고 왈가왈부한다면 그것은 벌써 군대가 아니라 오합지졸의 무리이다. 그런 군대에서 전사는 지휘관을 위해 방패가 되고 지휘관은 전사를 위해 육탄이 되는 고결한 동지애와 사상의지의 화합을 감히 바랄 수나 있겠는가. 자기 대오를 만 사람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한 걸음으로 걸으며 한 숨결로 호흡하는 그런 강철같은 통일체로 꾸릴 수 있겠는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전투시에 지휘관이 대원들과 꼭같은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도 나타났다. 소뿔도 각각 염주도 묶묶이라는 말은 무슨 일에나 다 각자의 차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순한 이치이다. 이 이치대로 해석하면 전투마당에서 지휘관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대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된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지휘관들을 향하여 돌격할 때에는 돌격서열의 앞장에 서고 방어할 때에는 방어진의 1선에 서서 생사를 가리지 말고 싸우라고 설교하였다. 이런 요구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전투장에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실행할 수 없게 하였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투상황을 부단히 살피면서 싸움을 광폭적으로 지휘해야 할 사람들이 1선에 서서 대원들과 함께 움직이다보니 부대를 정황에 맞게 제대로 통솔할 수 없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지휘관이 선봉에 서서 대원들을 돌격에로 이끌 때도 있고 적탄이 작렬하는 참호와 전호들을 돌아다니며 전투원들을 고무할 때도 있다. 부대가 역경에 처하고 그것을 순경으로 바꾸어야 할 지휘관의 선구적인 모범이 필요할 때에는 응당 제1선 위치에서 대원들을 원수격멸에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정황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곧 이신작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당시의 전투총화들에서는 자기의 지휘처를 이탈하여 돌격서열의 앞장에서 대원들과 꼭같이 행동한 지휘관들에게 노상 칭찬이 차례지곤 하였다. 대원들은 어느 소대장이 고지 위에 꿋꿋이 서서 전투를 지휘하는데 총알이 날아와도 꿈만해 한다거니, 아무 중대장은 적진으로 돌입할 때에도 대원들보다 장바 한 기장쯤은 앞서 들어간다거니, 우리 대대장만큼 적진속에 뛰어들어가 용감하게 육박전을 하는 대대장은 없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경쟁적으로 자기네 상관을 추어올렸다.

전투규정이 밝히고 있는 위치에서 전투발전 전반을 정확히 통찰하고 부대의 차후 행동방향을 결심해야 할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 필마단창으로 적진속에 깊숙이 들어가는 무모한 풍조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동만의 모든 유격대들에 다 전파되었다. 항일전쟁 초기 유격대들에서 소대장, 중대장과 같은 기본단위의 군사지휘관들이 많이 희생된 것은 이런 풍조 때문이기도 하다.

왕청에서도 필마단창의 명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김철, 김성현, 이응만 등은 다 그런 명수들이였다. 검철과 김성현은 선두에서 돌진하다가 전사하였고 이응만도 전위에서 싸우다가 발목을 상하였다.

연길의 최현과 조도언은 전 동만이 다 아는 돌격명수들이였다. 그들은 정찰도 대원들을 시키지 않고 자기네가 직접 하였다. 군사 지휘관들이라기보다 중학생들처럼 물덤벙 불덤벙하는 천진난만한 모험가들이였다.

조도언은 연길유격대가 낳은 유명한 모험가였다. 입나발을 잘 분다고 연길지방 사람들은 일찍부터 그를 ≪조나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러왔다.

그는 어디 가서나 이 별명 때문에 군중의 이목을 끄는 인물로 되었다.

사람들은 조도언이 입나발을 끊은 지 오랜 성년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백나발이 다된 말년까지도 그를 본명 대신 ≪조나발≫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항일전쟁의 포연탄우를 앞장서서 헤쳐온 투사 조도언에 대한 애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조나발≫이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별명 대신 본명대로 조도언이라고 부르면 오히려 이상해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할 지경이였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집 문밖에 와서 ≪이 집이 조도언동지 댁입니까?≫하고 물은 적이 있다.

그때 조도언은 푸접없다고 할만치 퉁명스럽게 ≪이 집에 ≪조나발≫은 있어도 조도언이란 사람은 없어. 여긴 ≪조나발≫의 집이야≫하는 대답을 하여 손님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그처럼 그는 항일전쟁 시기의 전우들이 지어준 자기 별명을 이만저만 사랑하지 않았다.

조도언

조도언이 만일 고인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도 이 글에서 이름대신 대중이 그렇게도 즐겨부르던 별명을 써가며 그를 회고하고 싶다.

자기 부모의 이름자도 변변히 쓸 줄 모르던 조도언은 더벅머리총각이다 된 때에야 야학에 들어가 처음으로 조선말 자모를 익히고 구구표와 ≪유년필독≫을 배웠다. 그는 문맹의 뒷골목에서 뛰쳐나오자마자 조직생활도 하고 유격대에도 입대하였는데 나중에는 중대장의 중임까지 맡아보았다.

조도언은 중대장이 된 다음에도 적의 포대 앞에까지 들어가서 직접 적정을 살펴보고 중대에 다시 돌아와서는 습격명령을 하달하고 선두에서 바람처럼 내달리곤 하는 유별난 싸움꾼이였다.

좌경분자들은 조도언이 백주에 적을 정찰하고 자위단을 쳐서 단꺼번에 여러 자루의 무기를 노획하자 각종 집회와 공식문건을 통해서 그의 무훈을 굉장히 선전하였다. 그런데 그 선전은 조도언이 그런 모험을 삼가야 할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면적인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선전으로하여 조도언은 온 동만이 거의 다 아는 싸움꾼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그는 대전차 전투때에도 대오의 앞코숭이에서 기관총좌지를 향해 돌진하다가 치명상을 당하였다. 기관총 앞으로 얼마나 바싹 접근했던지 적탄을 배를 뚫고 비스듬히 잔등을 관통하였다. 조도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나 이때의 부상으로 하여 그는 6년동안이나 병원생활을 하였다. 종당에는 그렇게도 사랑하던 중대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그가 병상에서 지낸 것은 항일무장투쟁이 대부대활동으로 전환되어 남북만주와 국내에로 판도를 넓히면서 승승장구해가던 때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전설적 존재로 되었고 그 혁명군의 정의로운 투쟁은 전세계 피압박민중들에게 광명을 주는 등불로 되었다. 항일전쟁은 새로운 사단들과 연대들을 지휘할 유능한 군사인재들과 백전노장들을 요구하였다.

조도언이 만일 전투능력을 상실한 전상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항일전쟁이 가장 눈부신 앙양기를 걷고 있던 때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공을 쌓아올렸을 것이다.

군대내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시정될 때까지 좌경분자들은 지휘관들의 신변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후에 가서야 연대와 사단들에 지휘관들의 호위임무를 담당하는 경위대를 조직하였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또한 혁명군대의 상벌적용에서 평균주의로도 표현되었다.

항일유격부대에서는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상벌제도를 설정하였다. 전투와 훈련, 일상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군인들에게는 상을 주고 복무조례를 엄중히 위반한 군인들에게는 벌을 주었다. 상의 공로의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하였고 벌도 과오의 경중에 따라 여러 가지로 주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어째서 아무개한테는 1등상을 주는데 같은 분대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한 이아무개한테는 2등상을 주는가, 아무 동무한테는 주의처분을 하면서 같은 과오를 범한 이아무개한테는 왜 경고책벌을 주는가고 시비하였으며 상벌적용에서 평균주의를 실시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거나 압력을 가하였다.

이것은 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신상필벌의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초현실주의적인 입장이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항일유격대의 군사정치도덕적 우월성을 부단히 발양시키며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려는 우리의 지향과 노력에 제동을 거는 유해로운 사상경향이었다.

이런 사상경향을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항일유격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조만간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유격대는 상하관계도 없고 관병의 계선도 없는 무법천지의 집단으로 될 것이며 기필코 내부로부터 무장해제를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그 표현형태가 어떻든지간에 소부르조아사상에 바탕을 둔 기회주의적인 사상경향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일종의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었다.

소부르조아사상의 반영으로서의 무정부주의는 일반적으로는 권력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 특수적으로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반발에 이 이념적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자유, 방종을 찬양하면서 사회에 무정부적 혼란과 무절제를 끌어들이려 하였다.

자본주의적 대생산과 부르조아지의 정치적 독재의 중압밑에서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정치적으로 무권리한 소부르조아계층의 불안한 심리를 체현한 일부 극단적인 사상가들은 자본가계급의 정치적 권력을 폭력적으로 타파하고 거기에 무정부주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권력 일반을 반대하는 데로 대중을 이끌려하였다.

프랑스의 소부로조아사상가인 프루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러시아의 바쿠닌이나 크로뽀뜨낀 같은 무정부주의사상가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극단한 증오, 사회적 평등에 대한 무분별한 요구로 표현된 이른바 무정부주의적 이론은 근로인민대중을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 수 없게 하며 착취계급의 독재를 타도한 나라들에서는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게 하고 진실로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제도, 새 생활을 꾸릴 수 없게 하는 백해무익한 사상조류로서 엄정한 역사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정부주의적 사상경향은 얼마동안 소부르조아계층속에서 극단한 민주주의와 무제한한 자유에 대한 환상을 조성시켰고 따라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대공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소부르조아적, 농민적 사상근성이 지배적인 지역과 나라들에서 일정한 파급을 보게 되었다. 적잖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무정부주의가 일정한 몫이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주요한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노동계급의 당들 가운데는 지주, 부르조아지의 반동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에 무정부주의 세력을 끌어들인 당도 있었다. 소비에트 정권이 공민전쟁 시기 우크라이나의 무정부주의 집단인 다흐노 일당과의 합작을 실현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항일유격대 내부에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대두했던 초기만해도 무정부주의적 경향은 일정한 사회계층, 특히는 소부르조아계층의 혁명성을 과시하는 일종의 정치이념으로 남아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혁명실천에 무시할 수 없는 해독을 끼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무정부주의적 경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국제노동운동안에서 나타났던 수정주의자들의 행동 역시 극단적 민주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들은 민주주의의 허울밑에 부르조아자유주의 외 무정부주위, 무절제, 무질서를 조장시키고 사회적 혼란과 방종을 야기시킨다. 이런 이치를 염두에 둘 때 우리는 극단적 부르조아민주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이에는 사상적 공통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사분야에 침습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정부주의적인 혼란을 낳게 된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제때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유격대 건설과 군사작전에 예상치 않은 후과를 미칠 수 있었고 전반적 혁명운동발전에 적잖은 지장을 줄 수 있었다.

우리가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청산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와의 투쟁을 하고 있을 때 십리평에서는 유격구 창설 후 1년반의 사업을 총화하고 적의 대≪토벌≫에 대처한 유격구방위대책을 세우기 위한 동만유격대 지휘관들과 정치위원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나는 이 회의에서 김일룡과 김정룡을 만났다. 김일룡은 안도유격대 대장이었고 김정룡은 정치위원이었다. 화룡현에서는 유격대 장 대장과 정치위원 차룡덕이 왔고 연길현에서는 유격대 총대대장 주진, 대장 박동근, 정치위원 박길이 왔다. 훈춘 동무들도 참가하였는데 누구누구였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

박동근

이 회의에서는 부대의 지휘와 관리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극복할 데 대한 문제도 토의하였다.

우리는 유격대오 안에서 부대지휘의 기본은 지휘관의 결심이고 엄정한 중앙집권적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부대지휘관리 방법은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부대안에는 상하관계의 구별이 명백하고 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지휘관은 상부의 명령집행에서 견결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일단 채택한 결심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휘관은 언제나 주동적으로 지휘를 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정황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결단성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렇다고하여 지휘관이 지휘에서 주관주의와 독단을 부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휘관은 상급의 명령집행과 전투지휘에서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할 줄 알아야 한다.

박길

지휘관은 명령 하나만으로 부대를 지휘하지 말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원들의 자각적 열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오늘의 전쟁은 필마단창으로 승패를 겨루던 노예소유자 시기나 봉건시기의 전쟁이 아니라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현대적인 인민전쟁이다. 싸움의 승패는 누가 군민의 열정과 창조적 적극성을 더 훌륭히 발양시키는가 하는 데 있다. 군민의 열정과 창조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 당회의, 전대회의, 선동원의 해설선전 등은 다 정치사업을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지휘관들은 이 수단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

그 때 내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훈춘유격대가 대황구에서 범한 과오를 비판하고 13용사의 희생을 초래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해독성을 두고 각 현 유격대 대표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내가 간단히 언급한 이러저러한 일화들이나 그 일화들이 내포하고 있는 유치하고 소아병적인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경향에 대하여 우리의 후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무장투쟁을 갓 시작한 그때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군대내에 침습한 것은 근거지방위와 통일전선의 중하를 걸머지고 부대관리를 책임진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한 시련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회의에서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의 원칙에 의하여 부대를 지휘관리할 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였다.

대황구사건 후 유격부대들에서는 서로 상치되는 두 가지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 중 하나는 지휘관의 유일관리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적 부대관리원칙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두 주장이 다 일장일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대황구 유격구역

유일관리제를 절대화하면 부대 지휘와 관리에서 독단과 주관이 조장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절대화하게 되면 지휘와 관리에서 신속성과 민첩성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라는 원칙을 내놓고 그것을 토의에 붙였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라는 것은 지휘관이 당조직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한 내용에 근거하여 부대를 책임지고 지휘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에 기초한 집체적 협의는 매 시기 제기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적 과업을 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해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에 기초한 개인책임제는 고도의 신속성과 결단성, 행동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요구에 맞게 지휘관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 안에 정연한 명령체계를 확립하여 강철같은 규율을 세울 데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지휘관의 명령은 어느 개인의 의사의 반영인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민주주의적, 조직적 의사의 발현이다. 군사명령은 법적 성격을 띠며 상관은 자기가 내린 명령에 대하여 법적으로 책임지다. 대원들은 명령을 조금이라도 에누리하거나 흥정해서는 안 되며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제때에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지휘관들은 명령의 집행과정을 옳게 지휘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공산주의 사상학습을 강화하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유치한 평등주의, 무정부주의 같은 소부르조아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부대안에 건전한 사상분위기를 조성할 데 대한 과업과 상하일치의 혁명적 기풍을 세울 데 관한 과업도 논의하였다.

십리평의회를 통하여 유격대 지휘관들은 각성되었다. 거듭되는 전투의 시련속에서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완전히 극복되어나갔다.

항일전쟁 초시기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를 철저히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해방 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를 불패의 대오로 강화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의 국제적 연합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 인민군대 안에는 무원칙한 평등이나 평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상관의 명령을 흥정하는 사람도 없다. 지휘관의 명령에 의하여 전사들은 오직 ≪알았습니다!≫라는 한 가지의 말로만 대답할 뿐이다. 우리 인민군대는 군인선서를 한 그날부터 제대증을 받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상하일치, 군민일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충신들의 집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군인들의 견해를 알려면 그들의 전투적인 구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를 보면 충분할 것이다. 우리 군인들속에서 발현되고 있는 상하일치의 참다운 면모를 찾으려면 한몸을 바쳐 수많은 전우들의 생명을 구원한 김광철 영웅과 한영철 영웅의 최후 하나만을 알아도 만족할 것이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시정되었으나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문제는 오늘도 의연히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옹호하지만 극단적 민주주의는 반대하며 평 등을 주장하면서도 지나친 평등주의는 금물로 여긴다. 극단적 민주주의나 극단적 평등주의가 다같이 수정주의를 끌어들이는 매개물로 되기 때문이다.

지구상에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정주의의 더러운 병균으로 침식시키지 못해 안달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수정주의가 우리의 체내에 침습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이 극단적 민주주의로하여 구락부화되고 장마당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로하여 강요되었던 항일전쟁 당시의 진통과 동구라파의 교훈이 그렇게 하라고 부르짖고 있다.

경하 축시

천출위인 태양성
통일영수 **김정일**
만민추대 경사절
백두환희 남해무
태양민족 향도성
충효단심 세세연
강성대국 통일국
영세무궁 만만세

주체87년 9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만민의 지성

지난 4월 이북에서는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커다란 관심 속에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성대히 기념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4월15일은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가장 경사스러운 최대의 명절로 되고 있다.

둘러보면 세계에는 나라와 민족들도 많고 명절들도 적지 않지만 우리 민족과 같이 태양절을 가진 남다른 영광과 자랑을 누리는 나라와 민족은 없는 줄로 안다.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민족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만민의 태양이신 주석님께 다함없는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주체의 태양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만민의 지성은 그분께 올리는 선물들에 뜨겁게 어려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을 맞으며 중국 지린 육문중학교와 이 학교 교장이 주석님께 선물을 올렸다.

주체의 태양을 따르는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알려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석님을 끝없이 흠모하여 세계 169개 나라의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인사들, 국제기구들, 이남민중과 해외동포들이 올린 선물은 조국광복후부터 지난 3월까지 무려 2만 6천 9백60회에 걸쳐 16만 5천 8백39점에 달한다고 한다.

그중 세계 여러 나라의 국가수반들이 5백74회에 걸쳐 2천 6백68점의 선물을 드렸고 각국 정부수반들이 5백48점, 각국 정당수반들이 8백36점을 드렸다.

국제기구와 단체들, 각국의 저명한 정계, 사회계, 실업계 인사들과 개별적 인사들도 7만 1천 3백1점의 선물을 드렸다.

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는 우리 민중과 해외동포들도 1만 1천 2백83회에 걸쳐 9만 4천 9백35점의 선물을 그분께 올렸다.

위인칭송의 결정체, 만민의 지성인 그 모든 선물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우리 민족의 국보로, 인류공동의 재보로 영원히 빛을 뿌리고 있다.

주체의 태양님께 드리는 만민의 지성은 평양에서 진행된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도 어려 있다.

개인의 명예나 상을 위한 경쟁 속에 존재하는 예술축전들과는 달리 4월의 봄축전은 세계 각국의 예술인들이 **김일성**주석님을 뵙고 주석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는 축전이다.

이번에 진행된 4월의 봄축전에는 세계 60여개국의 국제국내콩쿠르수상자들과 인기배우들로 구성된 90여개의 예술단, 곡예단과 해외동포예술단, 이북예술인들이 참가해 위인칭송의 찬가와 춤바다를 펼쳤다.

1982년 첫 막을 올린 때로부터 올해의 20차에 이르기까지 4월의 봄축전에는 연 세계 8백수십개국의 1만 2천여명의 외국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이 참가했다 한다. 그중 세계적인 인기배우들만도 1천 5백여명이 참가했고 그 관람자수도 1백80여만에 달한다고 하며 그 기간 축전참가자들에 의해 창작되어 무대위에 올린 위인송가는 무려 3백여편에 달한다.

이것은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주석님께 드리는 만민의 뜨거운 지성을 절감하게 하는 단편적인 사례라 하겠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만민의 뜨거운 지성은 태양의 꽃축전인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에도 깃들어 있었다.

이번에 진행된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에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마음이 어린 5천 5백여상의 태양의 꽃이 전시되었다.

태양의 꽃축전에는 **김일성**화를 재배하는 모든 단위들과 근로자들, 군인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쿠바 등 25개국에서 이번 전시회에 태양의 꽃을 전시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전시회기간 40여만여명의 해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전시장을 참관했다.

제4차 **김일성**화전시회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주석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만민의 불타는 충성심과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팔레스타인대통령, 기니공화국대통령, 몽골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통령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들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다.

또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 에콰도르의 모로나 산티아고주에서 **김일성**주석님을 명예시민으로 추대했으며 시리아 수도의 카파르 수사구역의 거리를 **김일성**거리로 명명하는 행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참으로 이번 태양절은 주체의 태양을 흠모하는 우리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숭배심과 뜨거운 지성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는 것을 대서사시적 화폭으로 보여 주었다.

조연택 - 구국전선
주체91, 5월 11일

영원한 심장의 노래(2)

≪로동신문≫ 정론 - 주체91, 1월 7일

그렇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는 수령결사옹위의 민족사적, 세계사적승리였다.

력사는 위대한 장군님 따라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진군길에 나선 지금 이 기발, 수령옹위사상을 더 높이, 더 굳건히 틀어 쥐라고 소리높이 웨치고 있다.

한 나라 인민의 생활에는 모든것의 흥망과 성패를 결정하는 근본뿌리, 근본정신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의 령도자를 하늘처럼 믿고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며 총폭탄이 되여 결사옹위하는것은 조선혁명가들, 우리 인민들의 가장 순결한 량심으로, 가장 아름다운 생활로 되고 있다.

수령옹위는 조선혁명의 밑뿌리, 백두산민족의 피줄기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인민은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망국노의 피눈물나는 운명을 강요당한 불행한 민족이였다.

울밑에 선 봉선화의 처량한 노래도 그래서 구슬피 울려 나왔고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 자중에 네 아버지 그 가운데 한사람이다라는 ≪토벌≫가도 그래서 간도의 하늘가에 애절히 울리게 되였다.

그러했던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을 받들어 모심으로써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고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참으로 우리 인민이야말로 수령이 없는 민족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뼈 저리게 체험한 인민이고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행복하고 존엄 높은 민족의 긍지를 그 누구보다도 가슴 벅차게 받아 안은 인민이다.

수령은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조국이며 우리의 행복과 번영의 전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 혁명은 굳건하고 우리 민족은 끝없이 행복하며 장군님만 따르면 우리는 언제나 강대하며 필연코 이긴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나깨나 그리며 장군님을 목숨 바쳐 옹위하는것을 우리 인민은 단순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양보할수 없는 삶의 권리로 간직하고 있다.

생활은 비록 어렵고 투쟁의 앞길에는 시련의 가시밭이 가로 놓인다 해도 경애하는 장군님만 생각하면 백배의 힘과 용기가 샘솟고 장군님만을 따라 갈 의지가 더욱 굳세여 지는것이 우리 인민의 모습이다.

수령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우리 인민이기에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잃는대도 수령옹위 이 정신만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산다.

수령결사옹위정신,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 커다란 고무와 힘을 안겨 드리고 온 나라를 다시금 비상히 각성시키는 21세기 강성대국행진곡이다.

새해의 첫 진군길에 울린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장쾌한 혁명군가는 장군님 따라 강성대국을 향하여 용감한 기세로 나가는 우리 인민앞에 삶과 투쟁의 좌표를 뚜렷이 세워 주고 있다.

우리 수령제일주의,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더 높이 떨치자고 해도 이 정신을 틀어쥐여야 하고 우리 군대제일주의,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더 빛내이자고 해도 이 정신을 들고 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가 없으면 강성대국도 없고 조국통일도 없으며 세계의 자주화도 없다.

령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재부가 많아 대국이 아니다.

수령이 위대하고 수령의 두리에 군대와 인민이 철통같이 뭉친 혼연일체의 힘이 위대하여 강성대국이다.

원쑤들이 제일 두려워 하며 제일 놀라와 하는것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힘 있고 권위 있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이며 우리 인민이 온 세상을 향하여 긍지높이 자부하는것도 다름아닌 수령의 두리에 총폭탄, 결사옹위의 성벽을 이룬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조선을 알려면 조선의 총폭탄정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구상의 그 어느 적도 타격할 만능의 무장력외에 몇천만톤의 핵폭탄보다 위력한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충성의 그 신념 오늘도 이어 갈 전 인민적사상감정의 폭발인 수령옹위사상은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 져 갈 백두산민족의 생명선이다.

이 정신을 이어 가는 길에 강성대국조선의 끝 없는 행복이 있고 이 정신을 높이 들고 나가는 길에 백두산장군혈통의 빛나는 계승이 있으며 위대한 **김정일**선군시대의 천년만년의 무궁번영이 있다.

오늘도 조국의 운명을 지켜 강성대국의 래일을 그리시며 바람 세찬 전선길, 멀고 험한 공장길, 농장길을 쉼없이 걸으시는 우리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거룩한 모습은 천만의 우리 가슴에 형언할수 없는 그리움의 파도를 휘몰아 온다.

이 지구우에 ≪정의의 호랑이≫로 거연히 서시여 제국주의머리우에 자주적인류의 징벌의 불호령을 내리시는 우리 장군님,

인민과 함께 허리띠도 조이고 인민과 함께 피눈물도 삼키시면서 ≪고난의 행군≫길을 헤쳐 오신 우리 장군님,

생사결단의 준엄한 격전의 나날에 더 정깊어 지고 더 열렬히 매혹되고 더 뜨겁게 신뢰하게 된 우리의 장군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그리움의 바다를 펼쳐 놓으시였다.

그래서 또다시 어려운 혁명의 진군길에 나선 이 시각 류달리 우리 인민의 격정을 불러 일으키는것도 수령결사옹위의 노래이다.

우리에게는 생활의 즐거운 정서를 더 해주는 흥겨운 노래도 많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살며 싸우며 죽어야 하는가를 깨우쳐 주는 이 노래가 더 좋다.

장군님 결사옹위는 총대우에 있다.

장군님 계시는 수뇌부 지켜 총대로 높이 든 구호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시대의 호소는 선군혁명대오에 신념의 장약을 또 한번 든든히 재워 준다.

≪영원한 심장의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의 제1의 동지, 선군혁명의 제1의 기수들인 백두산군대의 자랑높은 군가, 용감한 행진곡이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항일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장 70성상 혁명의 수뇌부를 총대로 지켜 온 우리 군대의 모습이 어려오고 군대를 따라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걸어 갈 맹세가 더욱 굳세여 진다.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의 보검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정신의 위력한 메아리와 함께 또 한번 비약할 2002년의 승리의 래일이 줄달음쳐 오고 이 구호의 힘 있는 사상과 함께 우리의 투지와 신심이 백배로 불 타오른다.

지구에는 압살의 칼바람이 무섭게 불어치고 있다. 워싱톤의 힘의 광신자들, 전쟁의 폭력배들은 있는 국력을 총 동원하여 보잘것 없는 세력을 이긴 주제에 허장성세하며 감히 그 누구와의 대결을 떠들고 있다.

조선을 알려면 조선의 총폭탄정신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지구상의 그 어느 적도 타격할 만능의 무장력외에 몇천만톤의 핵폭탄보다 위력한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이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원쑤들이 감히 이 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인민군병사들은 총폭탄결사옹위정신을 터쳐 불 타는 고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 버릴것이며 수천수만의 길영조들이 **김정일**장군 만세를 부르며 온몸이 폭탄이 되여 적진을 짓부실것이다.

조국앞에 오늘보다 더 엄혹한 시련이 닥쳐 오고 ≪고난의 행군≫을 또다시 하게 된다 해도 우리 인민은 이 노래를 부르며 끝까지 혁명의 붉은기를 지키고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의 강성대국을 보란듯이 건설하고야 말것이다.

심장에서 타오르는 인민의 정신은 총폭탄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

혁명의 폭풍속에서 수령의 위대성을 피와 살로 새긴 영웅적군대와 충직한 인민의 신념의 노래, 백두산민족의 제일정신인 수령결사옹위사상은 더 높이 전진하며 더 빨리 번영하는 강성대국과 더불어 이 땅우에 무궁토록 불 타오를것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역사 강좌 제17회
학사 김창호 선생 - 주체91, 5월 15일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

반적으로 약전이라고 할 때 주로는 노동계급의 탁월한 수령들 중요한 인사들의 사회적 경력이나 활동내용들을 추려서 쓴 전기를 말합니다. **김일성**장군의 약전은 말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 찬란한 혁명활동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수록한 전기입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현명한 영도업적 고매한 덕성이 그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장군의 약전은 광복 후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해서 편찬되어 가지고 주체41 1952년 4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돌을 맞으며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출판되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약전은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읽히우면서 어버이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적극 따라배우게 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위대한 업적이 깃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가 발휘한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그가 이룩한 빛나는 업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그를 높이 존경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님의 영도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따라 배우는데서 약전학습이 가지는 중요성을 일찍부터 헤아리시고 이 사업을 적극 조직 전개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하시였습니다. 그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떻게 되어서 **김일성** 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하게 되였는가? 말하자면 결성경위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 41 1952년 가을 어느 날 어버이 수령님으로부터 만경대 혁명학원에 가서 공부할 데 대한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해 11월 만경대 혁명학원에 가셨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에 오셔서 4학년에 편입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깊은 사색과 탐구를 통해서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미 최고사령부에 계실 때 **김일성**장군의 약전을 몇 번이나 탐독하시였습니다. 이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는데서 약전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갈 후비대로 준비시키시는 데서 수령을 따라 배우는 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영도 업적, 고매한 덕성이 집대성되어 있는 **김일성**장군의 약전을 깊이 학습해야 하며 이 사업을 만경대 혁명학원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결심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 딸이 되자면 산수나 국어 지리공부도 잘해야 하지만 수령님의 혁명역사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1 1952년 12월 학원의 소년단 지도원을 찾아가셔서 자신께서 최고사령부에 계실 때 탐독하신 **김일성**장군의 약전을 내놓으시면서 약전연구소조를 조직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제기는 학원의 교원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조직으로써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가 만경대 혁명학원에 처음으로 결성되게 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일성**장군의 약전 연구소조는 일찍이 수령중심 수령옹호의 혁명관을 확립하시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간직하신 우리 장군님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에 의해서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밑에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가 결성되게 된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우선 약전연구소조 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을 면밀히 지도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학생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배우기 위한 학습분위기를 세우셨습니다. 그이께선 자신께서 학생들에게 몸소 약전을 해설해 주기도 하시고 연구토론회도 자주 조직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주체42 1953년 2월 6일 약전학습에서 모범적인 소년단원들과 분단 열성자들의 모임을 여셨습니다. 그이께서는 모임에서 약전학습의 실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 학습을 더 잘하기 위해 소조를 조직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소조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학습을 통하여 학원학생들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조선혁명의 억센 기둥으로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조의 명칭을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로 하자고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해서 주체42 1953년 2월 10일 학급소년단원들의 모임을 여시고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결성하셨습니다. 그이께선 모임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약전학습이 가지는 중요성과 소조결성의 목적, 소조의 임무와 활동방향에 대해 말씀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 딸로 준비해 나가자고 강조하시였습니다. 소조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며 그 기본 형식은 약전에 대한 독보와 해설이였습니다. 그리고 읽은 책 발표모임 시읽기 모임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이야기 모임, 혁명가극 보급, 작문발표회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사업도 조직하셨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약전연구소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업적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첫 혁명역사 연구소조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의 결성은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그럼 그 의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의의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는 사업이 시작되게 한 역사적 사변이였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 의의는 조선 소년운동의 연대기에 빛나는 이정표를 세워놓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세계소년운동역사에서도 처음으로 되는 특기한 사변이였다는데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혁명활동을 연구보급하는 진보적인 선각자들과 혁명가들의 소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나이 어린 소년들이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역사를 학습하는 연구소조를 조직한 예는 일찌이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김일성**장군님의 약전연구소조를 조직하신 것은 청소년 학생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줄 아는 조선의 참된 혁명가로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장군의 약전 연구소조 활동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선 소조원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약전학습을 강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약전의 독보와 연구발표모임을 정상화하도록 하시고 보천보전투 승리의 기념일을 앞두고서는 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연구모임과 우등불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또한 증조할아버이신 김보현 선생님과 상봉모임도 조직하셔서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2 1953년 3월 초 자신께서 정히 간수하고 계시던 사진들과 신문잡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사진첩을 만들어 이용하시였습니다. 그리해서 소조원들은 약전의 내용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예습하게 됐고 약전해설 사업을 능숙히 진행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학원주변의 마을 사람들 속에서 약전해설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소조원들이 사진첩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를 해설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주시고 약전해설을 노래나 시낭송을 배합해서 진행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자신의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해** 모임때마다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사령부에서 ****** 보고 느끼신 이야기를 들려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승리에로 이끄시며 승리한 앞날을 내다보시고 전후복구건설을 준비하고 계시는 어버이 수령님의 영도풍모에 대해서 감명 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또한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를 확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이께서는 약전연구소조의 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활기 있게 진행되는 데 맞게 소조를 전학원적인 범위로 확대하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선 주체42 1953년 2월 말 학원 민청소년단 열성자들의 모임을 여시고 소조를 전학원적인 범위로 확대할 데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준비사업을 지도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2 1953년 3월 약전에 대한 해설 강습을 진행하게 하시고 그 후 학급별로 매주 월요일 오후에 약전 해설모임과 학습토론회를 진행하게 하셔서 학생들로 하여금 약전학습에 대한 열의를 높여 나가도록 하시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체42 1953년 3월 중순 학원의 책임일꾼 민청소년단 열성자들의 모임을 여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41돌을 맞으며 학원의 모든 청소년 학생들이 약전연구소조원이 될 충성의 결의모임을 조직할 것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해서 학원의 모든 학급들에 연구소조가 조직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사업은 넓은 범위로 확대되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는 그 후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따르고 모시려는 새세대들의 일치한 염원과 지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서 온 나라 청소년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 잡았고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동신문 주체42 1953년 4월 13일부는 ≪수령의 약전을 열심히 학습 - 평양지구 학생들≫이라는 표제 밑에 평양지구의 각급 학교 학생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에 대한 무한한 경애심과 충성심을 가슴깊이 다짐하면서 동료와 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 학교 소년단원들은 3월 초순부터 각 분단별로 **김일성**원수 약전연구서클을 조직하고 매일아침 수업전에 약전을 열심히 학습하고 있으며 매주 1회씩 종합토론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령의 투쟁업적과 문헌들을 더욱 연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되는 많은 도서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소개기사를 실었습니다.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는 전쟁시기 새세대들과 인민들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며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수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나가도록 깨우치고 이끌어 주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참으로 **김일성**장군의 약전연구소조는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를 깊이 체득하고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혁명적 대학을 거점으로 오늘 전당적으로 힘있게 진행되는 수령님의 혁명역사학습의 시원으로 되었습니다.

광주의 피값을 받아내자

자주, 민주, 통일의 절규가 하늘땅을 진감했던 5.18광주봉기. 그때로부터 22돌이 되는 오늘 우리는 항쟁의 거리에서 장렬하게 산화한 열사들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

아울러 살인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 기어이 피값을 받아내고야말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22년전 그날, 광주의 무고한 학생,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살육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배후조종과 ≪폭도≫들을 무쇠주먹으로 진압하라는 주한미군사령관의 살인명령에 따라 전두환군부파쇼일당은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 젊은놈들은 모조리 죽이라≫고 폭언하면서 피비린 살육전을 벌였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사령관 휘하의 병력 5만여명과 수백대의 탱크, 장갑차, 헬기 등 방대한 무력과 전투장비가 투입되었다.

살인귀들은 적수공권의 평화적 시민들과 학생들을 총으로 쏘고 대검으로 찔러죽이고 장갑차와 탱크로 깔아죽였다.

길가던 임산부를 붙잡아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냈고 나어린 여학생들의 젖가슴을 도려내어 죽였다.

심지어 병원에까지 뛰어들어 치료받는 부상자들을 폭도로 몰아 창문밖으로 집어던지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문자그대로 남녀노소 가림이 없는 무차별살육이었다.

금수도 낯을 붉힐 살육행위는 항쟁 10여일동안에 무려 1만여명이상의 사상자를 빚어냈다. 말그대로 그날의 광주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고 몸서리치는 피의 바다였다. 그러기에 항쟁자들은 ≪미국은 전두환을 지지하지 말라≫, ≪전두환을 찢어죽이라≫고 절규하며 손에 무장을 들고 살인무리와 용감하게 싸웠다.

광주항쟁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이 땅의 자주도, 민주도, 통일도 기대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민중봉기는 한국사회변혁운동을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승화시킨 직접적 계기, 분수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때로부터 22년이 흘렀지만 국토는 의연히 분단돼 있고 이 땅에는 진정한 자주도, 민주도 오지 않았다.

광주학살의 주범인 미국은 오늘까지도 사죄 한마디없이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다.

현실은 이 땅에 미제침략군이 남아있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이 계속되는 한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활하고 음흉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며 우리 민중의 자주와 민주를 유린하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미국의 식민지통치가 계속되는 한 광주열사들의 염원은 실현될 수 없다.

우리가 식민지속국민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부터 몰아내야 한다. 주한미군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우리 민중은 항시적인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도 기대할 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광주봉기자들의 그 정신, 그 투지로 대중적인 반미항전을 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 견결한 반미는 진정한 애국으로 된다.

미국을 반대하는 전민항쟁이야말로 시대의 요청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우리모두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는 성스러운 반미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기어이 자주, 민주, 통일을 불러옴으로써 광주항쟁열사들이 흘린 피값을 꼭 받아내야 한다.

구국전선 사설
주체91, 5월 11일

5.18광주민중봉기의 교훈과 현실

민족사에 찬연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웅적인 광주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22주년이 된다.

흔히들 시간의 흐름은 지나온 일들을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하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게 한다고 하지만 광주민중봉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역사와 우리 민중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며 이날의 항쟁정신은 오늘도 자주,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고무하는 기치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12.12숙군쿠데타세력의 횡포무도한 1980년 5.17폭거에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결사항전하여 도시를 해방하고 10여일간이나 민주의 깃발을 휘날리게 한 광주민중항쟁은 그 규모와 완강성, 지속성과 타격력에 있어서 근대 동방역사에서 처음보는 가장 크고 견결한 영웅적 민중항쟁이었다.

파쇼적인 5.17폭거에 항거하는 전남대, 조선대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로부터 시작된 광주민중봉기에는 30여만의 학생, 시민 등 각계층 민중이 참가하여 ≪계엄철폐≫,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미군철수≫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감히 싸워 미국의 식민지파쇼통치지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쇼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다.

광주민중봉기는 비록 미국의 노골적인 간섭과 조종밑에 전두환군부살인마들의 유혈탄압으로 인해 무참히 진압당했지만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으며 한국민중운동사에 길이 빛날 위훈과 교훈을 남기었다.

참으로 광주민중봉기는 미국의 식민지파쇼체제에 돌파구를 내고 우리 민중의 반독재민주화투쟁으로부터 반미자주화투쟁에로 방향전환을 가져온 분수령이었고 역사에 기록하여 길이 전하고 자랑하여야 할 영웅적인 투쟁이었다.

광주민중봉기가 남긴 경험은 각계층 민중이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 결사항전할 때 그 힘은 필승불패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당시 그처럼 파쇼폭압이 살판치는 조건에서 30여만의 군중이 투쟁에 떨쳐나 열흘동안이나 큰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광주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광주시가에서 살인마 특전단과 계엄군을 몰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광주의 전시민들이 한결같이 분기하여 높은 의식성과 조직성을 발휘하면서 영웅적인 무장항전을 벌인 결과였다.

그러나 광주민중봉기의 교훈은 친미파쇼독재세력과의 투쟁에서 타협은 절대금물이고 오직 비타협적인 투쟁을 끝까지 벌여야 하고 지역봉기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성원과 연대투쟁이 있어야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기당시 시민군과 항쟁지도부내 일부 투항파의 배신행위로 인해 총기들이 회수반납되고 도청내에 보관되었던 TNT의 뇌관이 사전해체됨으로써 결국 계엄군의 엄청난 유혈탄압을 막지 못하고 무참히 진압당했다. 또 봉기진압 후에는 당국의 ≪약속≫과는 달리 항쟁지도자들 모두가 ≪폭도≫로 몰려 검거, 재판, 처형당한 사실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광주항쟁시 목포, 화순 등 그 주변 시, 읍들에서 호응투쟁과 서울에서 학생들의 시위, 집회투쟁들이 있었을 뿐 타도와 지방들에서의 지지호응투쟁은 거의나 없었다. 당시 광주봉기자들은 타지방도시들에서의 지지성원과 공동연대투쟁을 절절히 바라고 있었으며 또 계엄당국과 미국은 그같은 호응투쟁이 일어날까봐 몹시 불안해 하고 경계했던 것이다. 사실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광주봉기에 호응하여 분기했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다.

광주민중봉기의 다른 하나의 교훈은 미국에 대한 그 어떤 환상도 가져서는 안되며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민주화도, 조국통일위업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에서 무차별 양민학살만행이 감행되던 때 이미 조기경보기를 띄우고 항공모함전단을 한국해역에 파견한 미국은 주한미대사와의 항쟁자들의 면담요청조차 거절했을 뿐아니라 전 안보담당 특별보좌관 브레진스키를 통해 ≪폭도들을 무쇠주먹으로 진압하라≫라는 폭압지령과 함께 국군경비사단들을 광주에 급파하고 탄압수단과 장비까지 대여 주었던 것이다.

광주학살만행을 통해 식민지 지배자로서의 미국의 실체가 드러났고 우리 민중은 미국이야 말로 ≪벗≫도, ≪보호자≫도 아닌 침략자, 살인마, 민주화의 적, 통일의 장애물임을 절감하게 되었을 것이다.

영웅적인 광주민중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어언 22년이란 세월이 흘러 갔다.

변한 것도 많지만 22년 전 광주항쟁자들을 피바다에 잠기게 한 장본인인 미국은 광주유혈참사에서 논 역할과 책임규명도, 규명과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한미군의 장기주둔과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남북민중을 핵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현실은 광주민중봉기의 피의 교훈을 잊지 말고 그날의 영웅적 전민항쟁정신을 계승하여 범국민적인 반전항쟁을 벌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5.18광주민중항쟁기념일을 맞는 우리 민중은 광주의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얼마간의 보상금이나 주고 항쟁자들을 명예회복시켜 주며 위령탑이나 세웠다고 하여 만족할 수 없다.

광주문제의 해결이란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살인마들이 처벌되어야 하며 특히 광주유혈참극을 승인하고 배후조종한 미국의 책임규명과 사죄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고 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 가야 한다.

우리는 광주에서 만수천명의 우리 동포들을 사살케 한 미국침략자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각계층 우리 민중은 전라도민들이 갑오농민전쟁과 광주학살사건, 여수군인폭동으로부터 5.18광주민중봉기에 이르기까지 역대 외래침략자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여 언제나 투쟁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워온 것처럼 반미반전항쟁을 과감히 벌여야 할 것이다.

반미반전항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강력히 벌여 이 땅에서 미국침략자들을 추방하고 새 북침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광주에서 무참히 희생된 5.18영령들의 한을 풀어 주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모두다 국민생존의 요구이고 민족과 후세와 촌토를 보존하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인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분기하여 나서자.

신대진 - 구국전선
주체91, 5월 15일

미국의 삽살개

주인의 옷자락에 붙어 맴돌면서 두발로 서기도 하고 아양을 떠는 삽살개. 삽살개의 이 모양은 주인이 던져줄 고기덩이를 바라서라고 하겠죠. 미국에 추파를 던지며 가려운데를 긁어주기에 혈안이 된 삽살개 이회창. 재야언론인 김근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삽살개≫, 이철씨 보내드리죠.

요즘 항간에서는 한나라당 전 총재 이회창을 미국의 삽살개라고 부르고 있다. 이회창의 본질을 옳게 반영한 별칭이라고 본다.

삽살개는 빠른 눈치와 살살이 교태로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구역질나는 아양과 아부아첨을 하지만 주인이외에 사람한테는 앙칼지고 표독스러운 행태로 해독을 끼친다.

이회창은 ≪한국인≫으로 원래 우리 국민에게 친근하고 유익한 짓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친미사대, 미국의 개로 전락되어 미국의 눈에 들기 위해 온갖 구역질나는 아부아첨을 하고 우리 국민 동족에게는 가공할 해독적인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회창의 이런 삽살개적 행태는 지난 1월하순에 있은 미국행각때 그가 미국관리들 앞에서 보인 언동과 작태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언론과 수행원들이 전한 이회창의 언행을 낯이 뜨겁지만 다시 떠올려본다.

1월 23일 체니부통령방에 들어선 이회창은 두손을 앞으로 모으고 굽신거리며 ≪부통령각하 옥체만강하시옵시까≫를 영어로 연발했다.

안락의자에 앉아 다리를 책상에 걸치고 신문을 보고 있던 체니가 안경너머로 이회창을 넘겨다보자 이회창은 너무도 황송하여 미소를 지으며 아양어린 어조로 ≪각하, 저는 부시대통령각하의 대북강경정책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의 해결없이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정부는 햇볕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숨가쁘게 고해바쳤다.

체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회창은 너무도 기쁘고 황송하여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허리를 깊숙히 숙여 봉양절을 하며 ≪각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고 있고 오직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할 결심에 있습니다≫라고 의기앙양한 어조로 결의를 표명했다.

예정된 20분은 40분으로 되였고 체니는 이례적인 접견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일방적인 간청에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회창이 미국행각에서 가장 신경을 곤두세운 것은 대통령 안보담당보좌관 라이스와의 면담이었다. 라이스는 비록 흑인여성이지만 부시의 강경정책을 적극 보좌하는 심복인물로 부시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회창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한승수 전외무장관을 내세워 라이스에게 만나줄 것을 간청했다. 그러나 라이스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낙심에 잠겼던 이회창은 어떻게하나 라이스를 꼭 만나야한다는 결심으로 라이스의 방을 찾아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인간생활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개의 소행이었다.

이회창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한채 머리를 좌우로 갸우뚱거리며 ≪보좌관각하, 용서를 빕니다. 저는 콘돌리자 라이스각하를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합니다≫를 연발했다.

라이스는 여전히 반짝반짝하는 흑인의 눈, 그러나 도도하고 멸시에 찬 눈초리로 이회창을 바라보았다.

이회창은 고개를 숙인채 ≪북을 미국의 안보에 가장 위험한 요소로 보는 보좌관각하의 안보철학은 정말 더없이 정당합니다. 북문제는 강경, 무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각하의 고견에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라고 아뢰며 흥분된 얼굴을 슬그머니 들어 옆눈으로 라이스의 눈치를 살폈다.

평소에 흑인을 멸시하던 이회창, 독사같은 볼품없는 흑인여인앞에 인간의 모습을 다 줴버린채 온갖 살살이 아양을 떠는 구역질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던 수행원 정모씨는 이렇게 전했다.

≪강자에게 비굴하게 아첨을 떠는 이회창의 습성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라이스앞에서 노는 꼴은 정말 아이때 먹은 젖이 넘어올 지경이었다. 매국역적 이완용인들 이등박문앞에서 그렇게까지 보기흉한 배일모습을 했겠는가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이었다.≫

언론은 라이스보좌관은 이총재와의 만남을 사적 면담이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였다고 전했다.

이회창은 라이스방을 나오자마자 파월국무장관, 콕스 미공화당 하원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미고위관리들을 찾아가 온갖 아부아첨을 하며 북은 오직 강경정책, 전쟁으로 대응해야하며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거역한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 국익을 위해 멸사봉공하겠으니 차기대권을 면허해달라고 애걸했다.

삽살개가 주인에게 아양을 떨며 아부아첨하는 것은 먹을 것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회창의 이러한 삽살개적 특질도 바로 민족이야 어떻게 되든 외세에 빌붙어 일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랜 세월 외세의 식민지적 지배하에 살아온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한 이기주의자들은 예외없이 외세에 빌붙게 되고 여기에서 이회창과 같은 삽살개적 특질, 반민족적 체질을 지닌 외세의 주구들이 생겨나게 마련이다.

이회창의 이러한 삽살개적 체질도 일제시기 친일주구로 악명을 떨친 애비 이홍규의 체질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홍규는 일제의 경성법학전문학교를 나온후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를 떨며 증오했던 황해도 서흥 검찰청에 자원해 서기로 들어갔다.

이홍규는 검찰청 일본인 검사들에게 삽살개처럼 아양을 떨며 아부아첨했다.

검사들이 아침 출근을 하면 허리를 굽혀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외투를 받아 걸었으며 담배를 꺼내면 쫓아가 불을 붙여주곤 했다. 한번은 이홍규가 검사에게 담배불을 붙여주다가 수염을 태워 욕설을 얻어먹고 구타를 당한 일도 있다.

그리고 이홍규는 일본인검사들의 생일을 수첩에 적어놨다가 그날이 되면 술병과 닭을 들고 찾아가 섬겨바쳤다. 일본인들에게 이처럼 아양을 떨며 아부아첨을 한 이홍규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잡혀온 조선의 애국자들에게는 악독한 야수였다. 수갑을 채운채 마루방에 무릎을 꿇려놓고 욕설을 퍼부으며 온갖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옆에 있는 일본인 검사들도 낯을 붉히며 머리를 돌릴 정도였다.

이홍규집안이 황해도 고향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충청도 예산으로 이주해와 살게 된 것도 이유가 있다. 당시 황해도지방 사람들이 일제의 악질 검찰서기 이홍규를 때려죽이려고 도끼와 몽둥이를 들고 그의 집에 습격을 가했다. 이에 불안, 공포를 느낀 이홍규는 2살난 이회창과 가족을 데리고 오밤중에 황해도를 탈출, 멀리 충청도 예산으로 도망하여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다.

일제가 패망했다는 천만뜻밖의 소식을 들은 이홍규는 3일동안이나 두문불출하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한다. 이런 절망에 빠졌던 이홍규는 미군이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세주를 만난듯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바로 1945년 9월 8일 이른 아침, 이홍규는 성조기를 가슴에 품고 10살난 이회창을 데리고 인천항으로 달려갔다. 미군들이 인천항에 상륙하자 이홍규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미친듯이 미군만세를 불렀다. 미군정청이 들어서자 이홍규는 재빨리 친미로 변신해 군정청에 드나들며 미국사람들에게 갖은 아양을 떨며 아부아첨했다.

이홍규는 이런 삽살개적 체질로 하여 또다시 미군정청 전남 검찰청 검사로 되었고 외세를 배격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해 나선 애국자들을 검거, 고문학살하는데 나섰다.

애비 이홍규의 삽살개, 반민족적 체질을 닮은 이회창은 애비의 직업을 이어 법관으로 되었다. 미국의 시나리오에 의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자 이회창은 즉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찾아가 법으로 군사혁명에 멸사봉공하겠다고 맹세를 다졌다.

군사쿠데타당국은 당시 서울지법 판사로 있던 이회창을 기특하게 여기고 군사혁명재판소 재판관으로 발탁했다. 이회창은 친미반공을 국시로 한 군사정권에 충실하여 반미자주화와 민주, 통일을 요구해온 모든 애국적이고 진보적인 인사들을 축출, 검거, 학살, 처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4.19이념을 받들고 새로 출현한 ≪민족일보≫사장 조용수씨를 재판하여 처형, 학살한 것도 바로 이회창이었다.

이회창은 미대사관에서 군사정권요인들을 조청하여 연회를 차릴 때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시킬 정도로 미국측의 총애를 받았다.

이회창은 1960년말 미국의 특혜조청을 받아 캘리포니아대학과 하바드대학에 들어가 미국대아시아전력과 대한반도정책의 진내막을 체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회창은 미국의 새로운 대한식민지정책에 의해 전두환신군부정권이 조작되자 즉시 대법원판사겸 대법원 군정청 기획실장이라는 핵심부에 들어가 광주사태후 고조되는 반미자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지향해 나선 애국세력들을 원천적으로 색출하여 재판처형하는데 최악의 공적을 세웠다.

이회창이가 얼마나 미국과 친미독재정권에 아부아첨하며 충실했는가 하는 것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처형내용을 통해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당시 법원 법관들속에서는 그 방화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었다. 광주사태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반미의 열풍속에서 일어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은 국민들속에서 응당한 징벌로 통쾌하게 생각하고 한편 미국측에서는 백악관에서 직접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엄벌해줄 것을 암암리에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이회창은 미국의 신임을 얻는데 더없는 호기회로 여기고 그 사건을 자진해서 맡았고 김현장, 문부식 등 사건관련자들에게 엉뚱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언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자행했다.

외세와 친미독재정권에 빌붙어 민족을 배반하고 일신의 권세와 부귀영화만을 추구해온 이회창은 지난 2000년 4월 4.8합의서가 발표되자 얼굴이 숯덩이로 변하고 절망에 빠졌다. 자기가 의거해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려온 외세의존, 분단냉전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회창은 이성을 잃고 그것을 헐뜯으면서 발악적으로 반대해 나섰다. 이같은 이회창을 희생시키고 구원한 것은 호전분자 부시미행정부의 등장이었다. 일제의 패망후 암담과 절망에 빠졌던 이홍규를 구원해 준 것이 인천에 상륙한 미군이었듯이 바로 부시행정부의 등장은 이회창에게 있어서 구세주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한 그였기에 2000년 12월 미대통령선거결과를 가슴 조이며 지켜보았고 부시의 대통령당선확정이 발표되자 미친듯이 환성을 올리며 구세주를 만난듯이 기뻐했던 것이다. 무한한 권세와 부귀영화를 안겨줄 대선을 앞두고 그 부시행정부의 부름을 받고 미국을 방문한 이회창의 기쁨과 환희, 기대가 오죽 컸겠는가.

이회창에게 있어서는 오직 애비 이홍규때로부터 물려온 외세에 아부아첨하는 기질을 마음껏 발휘하여 부시미행정부로부터 차기대권의 면허증을 얻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니 이회창이 부시행정부의 관리들부터 무슨 아양, 그 어떤 아부아첨인들 못하고 민족을 해치는 무슨 악담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외세의 주구, 미국의 삽살개인 이회창이 대권의 부푼 꿈을 안고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나섰다. 만일 이회창이 미국의 선정에 따라 대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우리 민족이 긴긴 세월 눈물로 아픈 상처를 씻으며 염원하고 투쟁해온 조국통일이 이룩되기는 고사하고 부시미행정부와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 악당에 의해 일으켜진 북침핵전쟁의 참화속에 우리 민족은 공멸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삽살개, 민족의 화근인 이회창을 그대로 놔둘 수 있겠는가. 정계에서는 물론 이 사회에서 제거시켜야 한다.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력을 위해 온갖 비굴한 사대매국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회창과 같은 매국역적이 절대로 권좌에 앉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이회창과 같은 인간쓰레기는 민족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고 땅속 깊이깊이 묻어버려야 할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5월 14일~15일

국민연대, 박정희기념관 건립 규탄집회

5.16군사쿠데타 41년을 맞은 오늘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정희기념관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16일 오전 11시 탑골공원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일제 36년간의 침략사를 합법화시켜주는 매국적 범죄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홍근수(자통협) 상임의장은 여는 말을 통해 ≪4.19혁명을 헌법적으로 인정한다면 5.16군사쿠데타는 4.19를 뒤엎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라며 ≪우리는 이 범죄행위를 41년동안 덮어 온 부끄러운 역사를 살아왔다≫고 말한 뒤, 이러한 불의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규탄연설에 나선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은 ≪4.19혁명을 뒤엎고 친일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았던 5.16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만약 박정희기념관이 서울에 세워진다면 다시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며 ≪자주독립국가를 후세에게 물려주려 한다면 박정희 기념관과 같은 친일의 맥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호소한 뒤, ≪박정희기념관 안된다!≫ ≪매국노 기념관 안된다!≫를 외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규탄연설에 나선 민주노총 조희주(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역사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며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를 위한 실천단을 조직해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복(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정희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규탄연설과 함께 민족문제연구소가 15일부터 박정희기념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암동에서 노숙농성을 들어갔다며 이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규탄집회에는 전감사원장인 이문옥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문옥 후보는 규탄연설을 통해 ≪만약 서울시장이 되면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반드시 중지시키고, 독립운동가를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할 것≫이라며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규탄집회는 곽태영(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군사테러범기념관 세울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집회 이후 홍근수 상임의장을 비롯해 다섯 명의 대표가 상암동 노숙농성장으로 지지방문을 갔다.

이날 탑골공원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집회 모습을 지켜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송정미 기자
2002/05/16 통일뉴스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기념관 공사현장서 농성

≪박정희 기념관이 들어선다면 이 땅에선 ≪5.18≫도 ≪4.19≫도, 나아가 ≪8.15≫ 광복도 이 땅에서 존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어제(15일)부터 박정희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는 상암동 공사현장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면서, 이번 노숙투쟁은 ≪항일독립운동을 하던 선열들을 풍찬노숙(風餐露宿)의 정신을 잇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노숙농성과 관련, ≪그간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장 표현할 방법으로 천막농성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 오전 11시 농성을 돌입을 앞두고, 천막을 설치는 과정에서 마포 경찰서측은 박정희 기념관 공사현장 주변을 ≪상암동 주민협의회≫라는 단체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냈다며 천막과 물품을 빼앗아 가는 등 민족문제연구소의 농성을 불허했다. 결국 주최측은 노상에서 비를 맞으며 농성을 시작해 현재는 한 회원이 제공한 트럭을 이용해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집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암동 주민협의회측과 연락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했으나 알려주지 않았다≫며 ≪언론.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경찰이 이를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이 같은 상황이 지난 4월 18일, 19일 집회 때도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방학진 사무국장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문제는 ≪정의문제 이전에 사회상식이 서지 않는다≫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논리로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파에 의해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정희 기념관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다른 모든 사회운동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번 농성은 모든 사회단체가 이 문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독립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 기념관 건립 반대 운동이 남다른 의미로 새겨지고 있는 조문기(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은 ≪5.16군사쿠데타의 마무리가 박정희 기념관≫이라며 ≪이것이 통하는 이 나라는 친일 공화국≫이라고 5.16쿠데타의 41년을 맞는 오늘의 심정을 피력했다.

또 박정희 기념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친일 공화국이 자꾸 커 가는 것 같다≫며 ≪국민적으로 결집된 힘이 같이 해야 하는데 미약해서 안타깝다≫며 아픈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우리 민족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결과를 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농성은 오는 19일까지 회원들 참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월드컵 기간동안 공사 중단 때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월드컵 경기장 옆에 파시스트 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다는 걸 알리는 한편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일시중지≫가 아닌 ≪영원한 중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이 지난 1월 26일 ≪도둑 공사≫를 시작해 완공 1년여를 남긴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은 들지만 이를 반대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노숙농성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이슈화 될 전망이다.

송정미 기자
2002/05/16 통일뉴스

5.18 시민법정 열린다

≪우리는 미국이 계엄당국과 은밀히 결탁했다는 혐의가 두렵고 광주지역에서 반미감정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처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주한 미 대사 글라이스틴과 미 국무부 홀브르크 차관보 사이에 오고 간 비밀전문, 1980.5.22)

1980년 5월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시민법정이 열린다. 5 · 18 시민법정 추진위원회는 5월 18일(토) 오후 2시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의 원로와 시민, 학생들이 모두 나서고 각계각층이 함께 만드는 시민법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고발장에서 ≪80년 5월 광주는 외신기자들에게 ≪피의 목욕탕≫이라고 불릴만큼 참혹했었다≫며, 그 고립무원의 순간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왔다는 소식(25일)이 전해지자, 광주시민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이 광주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태평양을 넘어 온 줄 알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으나, ≪불과 이틀 뒤 새벽, 피로 물든 도청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바람이었는지≫ 광주시민들은 깨달았다≫고 기술했다.

≪≪이제야 알았다. 우리 정부 뒤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27일 새벽 도청에서 시민군이 죽어가며 깨달은 사실이다. 그것은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피의 교훈이었다. 30년 동안 가려진 미국의 진짜 얼굴이 역사 앞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추진위는 이어 ≪미국은 5월 22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광주문제에 대한 강경진압을 결정하여, 신군부가 요청한 20사단 등 군대투입을 승인하였고, 신군부의 진압을 지원하고 만약에 진압에 실패하여 항쟁이 전국적으로 번질 경우에 대비하여 항공모함을 보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적시하면서, ≪미국무부 비밀전문 등으로 미국의 책임이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을 광주시민과 전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사죄와 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본 법정에서 피고로 호출되는 이들은 광주학살 당시 주한 유엔군 및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위컴 사령관, 글라이스틴 주한미대사, 홀브르크 미 국무성 아태담당차관보, 그리고 최고책임자인 카터 미국 대통령 등 모두 4인이며, 고발인은 5 · 18유족회 회장 정수만, 5 · 18민중항쟁동지회 회장 정해직 등 6인이다.

재판장은 옷로비사건 특별검사로 유명한 최병모 변호사가 맡고,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이 시민판사로 참여한다. 검사단 구성은 수석검사원에 심재환 변호사, 시민검사에 손미희 반미여성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변호인단에는 이정희 변호사외 1명, 그리고 배심원단에는 문정현 신부를 비롯해서 30명이 참가한다.

명망있는 증인들도 여럿 등장한다. 직접 참여하는 미국인들로는 르녹츠 하이즈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유엔상주대표, 넬슨 만델라 변호사, 브라이언 베커 국제행동센타 의장, 카치아피카스 웬스민스터대 교수 등이며,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팀 셔록(Tim Shorrock), 평화를 위한 재향군인회 대표 등은 영상으로 출연하여 5.18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증언할 예정이다.

그 외 강정구 교수가 현대사 전문가로 나서서 결가지를 정리하고, 항쟁 지도부 1인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이어진다. 추진위측은 전남도청 대회의실의 자리가 부족할 경우 항쟁의 현장인 금남로에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법정을 생중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비좁은 장소에도 불구하고 시민법정의 무대로 전남도청이 선택된 것은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자리에서 미국을 심판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 기자
2002/05/15 오마이뉴스

통일연대 ≪통일염원 스승의 날≫ 행사 열어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는 ≪단체나 개인이 사심이 없어야 한다≫며 ≪자기단체를 위해 단결을 저해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일꾼이 아니며 단결을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겠지만 사뭇 다르면서도 뜻깊은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7시 20분 서울대 예능관옆 2층식당에서 열린 ≪통일염원 스승의 날≫ 행사는 통일운동에 한 생을 바쳐온 ≪스승≫들을 모시고 통일연대 소속 단체 회원들이 조촐하게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정작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운동 진영 내부의 자성의 소리가 나와 짐짓 숙연한 분위기였다.

임방규(70, 비전향장기수) 통일광장 대표는 ≪오늘 인천항에서 북으로 쌀을 보내는 행사가 있었고, 8.15방북자들의 재판이 열렸으며 서울대에서 조성만군 추모회가 열렸다≫며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조국은 미국이 언제든지 핵전쟁을 감행하려고 하는 엄혹한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되물었다.

임방규 대표는 ≪많은 단체들이 그 동안 양단된 조국을 하나로 잇기 위해 각기 단체를 꾸리고 힘차게 살아왔다≫고 전제한 뒤 ≪조국을 위해 미국을 몰아내고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자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쟁쟁한 일꾼들이 모여 거듭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왜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방규 대표는 ≪단체나 개인이 사심이 없어야 한다≫며 ≪자기단체를 위해 단결을 저해하는 것은 진정한 통일일꾼이 아니며 단결을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하나의 대오가 아닌 선배들의 모습을 결코 이어받아서는 안되고 훨씬 단합된 모습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후배들에게 부탁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통일연대의 한상렬 상임대표는 ≪통일염원 스승의 날은 민족민주운동 스승의 날로 전국연합이 개최해오던 것을 올해부터 통일연대 깃발로 함께 하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큰 나무, 깊은 강이신 선배 어르신들은 영원한 저희의 스승이시며, 꼭 계셔야할 자리에 계셔서 후진들이 있어야할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있다≫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린다≫고 인사했다.

전상봉(37) 한청 의장은 ≪지난 100년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는 일제 시기와 미국에 의한 분단의 시대였으나 선생님들의 젊음을 불사른 투쟁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자주.민주.통일을 노래하고 통일의 21세기가 밝았다≫고 말하고 ≪일생을 바쳐 투쟁해 온 삶을 배워 21세기 자주.민주.통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도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인사말과 조영건(경남대) 교수의 축배 제의, 류은숙 반미여성회 서울본부 사무국장의 편지 낭독, 경희대 김성근 총학생회장과 조용수 단국대 총학생회장의 인사말, 청소년단체 희망과 서총련 율동패의 공연 등이 이어졌으며 각 단체가 준비한 선물 증정과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도 있었다.

한편,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대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민가협과 유가협의 장터가 열리고 있으며, 스승의날 행사에 참여한 원로들은 대부분 직전에 서울대에서 열린 조성만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다.

김치관 기자
2002/05/16 통일뉴스

통일혁명운동이론의 논제와 토론 (11)

서론

논제1-통일운동과혁명운동의성격과임무

논제2-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주체와그역할

논제3-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역량편성

논제4-조국통일운동의주체와그역할

논제5-≪두 개의전선론≫에대한보완,수정

논제6-민족해방혁명의관점에서고찰한
미군철거의의의

논제7-선군혁명전략의당면목표와
6.15공동선언의지향

논제8-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민주정권의지위와임무

논제9-지역통일전선의형성과
진보적대중정당의건설

▶ 논제10-올해의선거정국과민족민주운동세력의대응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연립정권

▶ 결론

논제 10 -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연립정권

조선혁명의 수령이시며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 44(1955)년 4월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인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을 우리 나라에서 몰아내지 않고는, 그의 주구 이승만도당을 숙청하지 않고는 혁명의 과업을 완수할 수 없다.≫

통일혁명당은 1980년대 중반에 작성한 문건 ≪통일전선론≫에서 통일전선운동에서의 우경투항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경계하고 있다.

≪만일 남북단합의 원칙을 가지고 남조선에서 통일전선을 한다면 우경투항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 통일전선운동에서 우경투항주의는 통일전선사업에 대한 노동계급과 그 당의 영도를 거부하며 적아를 똑똑히 가려내지 못하고 혁명적 입장을 떠나 혁명의 원쑤들을 ≪동맹자≫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무원칙한 연합을 실현하며 계급투쟁을 포기하는 길로 나간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혁명이론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발표된 ≪열 가지 논제≫에서는 ≪비판적 지지론≫과 민주연립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신식민지 정치권의 내부에서 집권층 개혁파가 미제의 사주 밑에 약진하여 정치권에서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고 하여도, 그들은 미제의 손아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아니고서는 신식민정권이 다른 성격의 정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의 인식은 확고불변해야 합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르조아개혁정책이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호전되고 노동계급의 사회정치역량이 장성하게 되어 자본가계급이 노동계급을 이전처럼 무자비하게 억압・착취하지 못하게 된 조건에서 양대 계급이 일정하게 타협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급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조아계급독재의 산물입니다. 더욱이 신식민체제의 집권층이 주도한다고 떠들고 있는 ≪개혁≫은 자기의 신식민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미제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입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개혁이라는 정치강령을 제시하고 있다는 피상적 측면을 관찰하면, 집권층 개혁파의 개혁정책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주개혁정책은 적대적 모순관계라고 볼 수 없으나, 정권을 장악하는 치열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본질적 측면에서 관찰하면, 진보적 대중정당과 집권층 개혁파는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습니다. 미제의 하수인인 집권층 개혁파가 지니고 있는 신식민지예속성은 진보적 대중정당의 민족자주성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관계를 성립시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집권층 개혁파와는 상호연대할 수 없지만, 집권하지 못한 민주개혁세력과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통일전선으로 인입해야 마땅합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그렇다면 집권층 개혁파와 진보적 대중정당이 선거정국에서 타협하여 이른바 ≪연립정권≫을 수립하고 그 정권을 개조・발전시켜 장차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미제의 신식민체제에서 자주적 민주정권에로의 평화적 이행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이 미제에게 장악되어 있는 집권층 개혁파와 정권연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미제의 식민통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몽매한 발상이며, 지역통일전선의 조직형태로 땀흘려 건설한 진보적 대중정당을 결국 전국적 통일전선에서 분리・이탈시켜 미제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미제의 식민통치가 일반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개혁파를 외면하고 포악한 군부파시스트들과 반동수구파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지난 시기에는 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파쇼민주전선의 일환으로 재야개혁파와 손을 잡고 연립정권을 수립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전혀 달라진 조건에서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관점과 태도는, 어디까지나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전망이 불투명하였던 지난 시기의 선거전술에 의존해서는 금년의 선거정국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으며,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자주적 민주정권의 수립을 자기의 전략목표로 아직 세우지 못했던 지난 시기의 선거전술을 가지고서는 금년의 선거정국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선거정국에서 반동수구파를 고립・타격해야 한다는 전술적 목표만을 단선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집권층 개혁파와 공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론≫은 지난 시기의 낡은 선거전술에 지나지 않으므로 청산해야 합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그러나 정권장악의 문제가 전면에 대두되는 선거정국에 대응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전술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공조전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전술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전진시켜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의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거정국에 뛰어드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의 선거정국에 대한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정국을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돌파하자!, 이것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당면구호가 되어야 합니다.≫(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첫째, 진보적 대중정당과 집권상층개혁파와는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 진보적 대중정당과 집권상층개혁파와는 혁명운동의 견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운동의 견지에서도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 이 점을 위반하면 그것은 통일전선사업에서 우경개방주의를 범하게 된다. 집권상층개혁파와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오직 북측정부만이 가능하다. 이 점을 부정하면 그것은 통일전선사업에서 좌경관문주의를 범하게 된다. 적대적 모순관계인 진보적 대중정당과 집권상층개혁파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

둘째, 진보적 대중정당은 재야개혁파와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재야개혁파와는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 하여야 한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세력만이 아니라 광범한 중간세력까지도 정치적 기반으로 포괄하여야 한다. 과거 재야개혁파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집권상층개혁파와는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없다. 집권상층개혁파는 친미예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세력으로서 반미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과는 적대적 모순관계이기 때문이다.

세째, 민족민주세력의 당면목표는 일반민주주의실현이다. 민족민주세력의 당면목표는 민주연립정권수립이 아니라 일반민주주의실현이다. 민족민주세력은 군사파쇼정권치하에서 재야개혁파와 반파쇼민주전선을 형성하며 민주연립정권수립을 전술적 목표로 삼았던 적이 있었다. 그때와 조건이 판이하게 달라진 오늘, 민족민주세력은 자주적 민주정권수립을 전략적 목표로, 일반민주주의실현을 당면목표로 삼아야 한다. 민족민주세력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무기는 진보적 대중정당이며 그 방법은 전민항쟁이다. 민족민주세력과 재야개혁파의 통일전선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민족민주세력의 목표는 확고히 자주적 민주정권수립으로 되어야 한다. 한편 민족민주세력이 집권상층개혁파와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고 그 민주연립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미제식민정권의 본질을 모르는 몽매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일반민주주의는 민족민주세력과 집권상층개혁파의 통일전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민족민주세력은 일반민주주의를 실현한 후 이를 교두보로 삼아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으로 나아간다.

네째, 남측민족민주세력은 집권상층개혁파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하여 전술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식민지의 친미예속세력은 6.15공동선언지지세력과 6.15공동선언반대세력으로 분열되었다. 북남정부간의 통일전선은 전술적 공동전선으로서 북, 남, 해외의 통일애국역량간의 전략적 통일전선과는 질이 다르다. 북남정부간의 통일전선이 형성된 조건에서는 남측민족민주세력과 집권상층개혁파간의 전술적 공조가 필요하다. 남측민족민주세력은 정권퇴진투쟁을 자제하며 집권상층개혁

파와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하여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적 공조관계는 ≪이론문제≫의 견해와는 달리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측민족민주세력의 당면투쟁방향은 정권퇴진투쟁이 아니라 지역통일전선운동이며 지역통일전선운동의 투쟁대상은 집권상층개혁파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와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이다. 만약 민족민주세력이 당면투쟁방향을 정권퇴진투쟁으로 설정한다면 집권상층개혁파를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측으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모처럼 마련된 북남상층민족통일전선에도 치명적 후과를 끼치게 될 것이다.

다섯째,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영도성을 견지하는 것은 통일전선의 전략적 원칙이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것은 통일전선운동의 전 과정에서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전략적 원칙이다. 전위조직은 조선노동당의 혁명영도체계에 결합되어 있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전위조직의 최저강령을 자신의 강령으로 삼으며 지역통일전선을 정치적 기반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직접적 담당자이다. 따라서 민족민주세력의 집권전략이자 진보적 대중정당을 통한 집권전략, 전민항쟁을 통한 집권전략인 것이다. ≪비판적 지지론≫은 선거에서 민족민주세력이 집권상층개혁파와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고 나아가 민주연립정권을 개조하여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집권상층개혁파의 친미예속성을 간과하고 미제식민통치의 본질을 모르는 몽매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론≫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영도성, 통일전선의 전략적 원칙을 부정하는 이론, 민족민주세력을 미제식민통치의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진보적 대중정당을 미제국주의의 개량화정책에 농락당하게 하는 우경기회주의이론인 것이다.

여섯째, 민족민주세력의 선거전략은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미군철거,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유일한 합법정당으로서 민족민주세력의 정치적 별동대이다. 민족민주세력은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강화하고, 진보적 대중정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하여야 하며, 진보적 대중정당을 자주적 민주정권의 직접적 담당자로 발전시켜야 한다. 민족민주세력은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후보의 낙선≫이라는 전술적 목표만을 단선적으로 사고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사업을 홀시하며 ≪비판적 지지론≫으로 ≪개혁후보≫의 들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민족민주세력은 진보적 대중정당을 중심으로 재야개혁파를 비롯한 광범한 중간세력과 연대하는 한편 친미예속적 반민주반통일세력을 철저히 고립타격하여야 한다. 민족민주세력의 독자후보를 중심으로 범민주세력의 단일후보를 내세우며 반민주후보를 낙선시키는 방침은 향후 모든 선거에 일관되어야 할 선거전략이다. 선거의 유형과 당시의 정황에 따라 선거전술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선거전략만큼은 달라질 수 없다. 선거전략이자 곧 통일전선전략이기 때문이다.

결론

진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에 있다. 조선혁명의 수령이시고 조국통일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혁명사상, 통일혁명전략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통일혁명의 진리가 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심화발전시키시고 계시는 선군혁명사상도 그 시원을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에 두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일성**주의에 선군혁명사상을 더하면 곧 21세기 **김정일**주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 통일혁명의 위대한 사상과 전략을 **김정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고 간고하며 장기적인 통일혁명의 나날, 우리 민족민주세력이 투쟁의 좌표를 잃지 않고 승리의 한 길로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를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데 있다. 바로 이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 ≪열 가지 논제≫의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87호)

광 고

대학신입생에게 추천하는 영화 10선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계엄령≫까지

≪마이클 콜린스≫

우리에게 ≪크라잉게임≫ 등으로 유명한 닐 조단감독이 조국 아일랜드의 영웅 마이클 콜린스의 일대기를 그려낸 전기영화로 서 베니스영화제대상작품. ≪쉰들러리스트≫로 유명한 리암 니슨이 마이클 콜린스역을 맡아 연기하는데 압권이다. 아일랜드 출신인 에이단 퀸이 그 친구 해리 볼란드로, 입 큰 여자 줄리아 로버츠가 그 연인 키티로 나온다. 12세기 이래 영국의 가혹한 식민통치를 받았던 아일랜드의 해방을 위해 마이클 콜린스는 뛰어난 도시게릴라전투를 전개한다. 그 결과 영국은 정치협상에 나오고 비록 한계가 있지만 자치정부를 설립하게 된다. 협약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의 유혈전 와중에서 마이클 콜린스는 저격당하고 그 정적인 에이몬 드 발레라는 최초의 수상이 된다. 1966년 발레라는 이렇게 후회했다. ≪역사는 마이클 콜린스가 위대했으며 나의 식견이 짧았음을 기록할 것이다.≫ 모택동도 그의 게릴라전술을 참고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와 미국, 아일랜드와 영국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